한솔LCD, 태양광 모듈 사업 진출

오창공장에 50억원 투입 50MW 라인 건설 ... 2010년 중으로 양산

한솔LCD(대표 김치우)는 미래 신수종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솔LCD는 1차로 오창공장에 5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모듈 50MW 생산라인을 도입해 2010년 중으로 양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50MW는 1만5000~1만7000가구가 1년가량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또 전량 수입하고 있는 라미네이터 등 핵심설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외 태양광 모듈 메이저와의 전략적 제휴도 모색해나갈 방침이다.

한솔LCD는 태양광 모듈 사업을 통해 연간 5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7/07>